

이번 전시회에는 두산중공업(주), 삼성테크윈(주), (주)에이치케이알, (주)청우하이드로, TRUMPF GmbH, HASS AUTOMATION Inc 등 한국, 독일, 미국, 대만, 스위스 등 31개국 900여 업체가 총 4,100여 품목에 달하는 첨단 기계류·부품을 전시했다.

특히 해수담수화 설비분야 세계 1위인 두산중공업은 한국형 최신 원자로인 '3세대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ARP모형' 및 세계 담수 프로젝트 중 최대규모인 '쇼아 이바 담수플랜트모형'을 전시했고, 삼성테크윈은 항공기엔진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터보 압축기'를, 산업용 레이저가공기 전문제조업체인 (주)한광은 세계시장 공략을 위해 향상된 속도와 안정성이 강화된 '레이저가공기'를 선보였다.

또한 이번 기계산업대전에서는 동서발전과 서부발전,

뉴로스 등 15개업체가 발전협력 전시관을 구성하여 국산 우수 발전 기자재를 전시하였으며, 주사전자현미경을 생산하는 (주)코셈을 비롯하여 (주)하이트롤, (주)케어텍 등 73여개의 연구장비업체가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광학기기, 시험기기, 측정분석장비 등 최신 개발 국산장비를 한 자리에 선보였다.

이번 행사기간동안 기계산업 종사자의 기술개발의욕 고취 및 사기양양을 위해 "우수 자본재개발 유공자포상" 및 중소기업의 신규 거래선 발굴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집중 지원하기위해 실무수요자 중심의 "해외바이어 구매담당자 초청 수출상담회"와 최신 기계기술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신제품 발표회 및 기계기술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펼쳐졌다.

27일 개최된 중동·인도 밴더등록 수출상담회는

짧|막|취|재

(주)프로옵틱스

입체 카메라용 줌렌즈 및 입체 프로젝터용 광엔진 선보여

(주)프로옵틱스(대표·정진호)가 지난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린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 3D 카메라용 줌렌즈와 3D 프로젝터용 광엔진을 선보이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미 고정초점렌즈 방식의 HDTV급 입체렌즈 개발이력을 갖고 있는 이 회사에서 이번에 선보인 3D 줌렌즈는 양안의 줌렌즈를 고난이도로 조립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회사에서는 고해상·고정밀화 추세에 맞추어 장비가 요구하는 성능, 외관, 기타 사용 요건에 맞게 자유자재로 설계제작이 가능한 맞춤형 렌즈 기술을 무기로 입체 줌렌즈 및 입체 프로젝터용 광엔진의 개발에도 성공했다.

이날 선보인 3D 렌즈는 기존 방송용 카메라 1대를 이용하여 시분할적으로 3D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2D카메라 2대를 사용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우수한 성능은 물론, 크기를 대폭 줄여 콤팩트한 크기에 제어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함께 선보인 3D 프로젝터용 광엔진 역시 기능 및 외관에서 기존 제품과 크게 차별화 된다. 기존에는 3D영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각 왼쪽 화면, 오른쪽

화면을 구현하여 두 화면을 하나의 화면으로 겹쳐야하기 때문에 보통 2대의 프로젝터가 필요한데 반하여 프로옵틱스의 광엔진을 사용하면 한 대의 프로젝터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현재까지는 광엔진만 제작된 상태이므로 광엔진 상태에서도 납품이 가능하지만 금년 12월까지의 회로부를 완성시켜서 완전한 프로젝터로 모습을 바꿀 예정이다.

정진호 프로옵틱스 사장은 "국내는 물론 이들 제품에 대한 반응이 좋아 현재 일본과 미국에 판매망을 가진 외국바이어와 상담을 진행중이며, EBS방송국

에서도 입체 영상 촬영을 위해 렌즈 대여를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이들 제품에 대한 좋은 반응에 힘입어 프로옵틱스는 입체영상에 대한 새로운 사업

진출을 구상중이다.

정진호 사장은 "현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이미지 센서가 내장된 입체 카메라 및 입체현미경까지 개발하여 내년 중에 일본 전시회에 출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프로옵틱스에서는 의료산업용 광학계 개발에 있어서는 X ray용 DR렌즈를 생산을 비롯하여 ENT용 경성내시경을 개발하고 있으며, '입체 복강경 수술용 검사 광학계 개발'에 대한 정부 과제를 계약하는등 의료기기용 광학계의 사업화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출품한 3D 줌렌즈 앞에서 정진호 사장(가운데)이 일본 바이어와 함께 포즈를 취했다.